

금배지 달기 위한 '위대한 쇼쇼쇼'



tvN '위대한 쇼' 송승헌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 벗고
풀어진 모습 보여줄 것
가볍게 연기하니 즐거워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정치판에서 유명한 이 말에 따라 tvN 새 월화드라마 '위대한 쇼'의 주인공 위대한(송승헌 분)은 인간도 아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4년 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했다가 푹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대환에게 기회가 온다. 18세 여고생 한다정(노정의)이 자신의 딸이라며 나타난 것.

부성에는 하나도 없지만 금배지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한은 고아가 된 다정 등 사남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 중 가장 어려운 게 제가(齊家)라는데...

즐거리에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전작 '60일, 지정생존자'처럼 정치를 테마로 하지만 가볍게 힙 뎀 코믹 소동극이다.

송승헌은 21일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의 데뷔작인 코믹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이야기를 꺼내며 코믹 연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옛것에 같은데 '남자 셋 여자 셋' 작품을 한 지 꽤 됐다. 그때 연기가 뭘지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 순수했지만, 연기를 가장 못 했을 때"라면서 "그 작품이 있었

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나의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에 대해 고민했다. OCN '블랙', '플레이어' 등과 달리 이번에는 풀어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 역할이지만 무겁지 않은, 가볍게 힙 뎀 연기를 했다. 현장 갈 때마다 즐겁게 하고 있다"라며 "20대에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좀 더 연기 잘한다는 얘길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라고 웃었다.

송승헌과 노정의 외에 이선빈, 임주환 등도 출연한다. 극본은 '광교전체 이태백', '타짜', '불량주부' 등의 실존적 작가, 연출은 신용휘 PD가 맡았다.

이 작품은 당초 '유령을 잡아라' 후속으로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유령을 잡아라' 후반부 작업 관계로 먼저 편성됐다. '위대한 쇼'는 100% 사전 제작됐다.

오는 26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광주 시인과 무안 주방장의 유쾌한 만남

KBS 1TV '인간극장' 26~30일 '시인과 주방장' 방송

KBS 1TV '인간극장'은 26-30일 오전 7시 50분 '시인과 주방장'을 방송한다.

방송은 무안의 작은 중국집에서 일하는 광주 출신 김을현(56·왼쪽) 시인과 손 빠른 중화 요리사 김경만(55)씨를 조명한다. 두 사람의 유쾌한 인연을 이어준 것은 바로 '시(詩)'.

을현 씨는 2011년에 등단해 1000여 편의 시를 써 온 시인이다. 2년 전 광주에서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을현 씨는 무안 작은 중국집의 소문난 낙지잡뽕을 취재차 들렀다 소탈한 경만 씨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로부터 1년 뒤, 오랫동안 글 쓰는 일을 해오던 을현 씨가 무안행을 결심했고, 그렇게 시인과 주방장의 유쾌한 동거가 시작됐다.

중국집 창고는 시인의 작업실이 됐고, 올해 봄부터는 을현씨의 어머니(김기운·95)도 한 지붕에서 지내는 식구가 됐다.

경만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형수님 손에 자랐으며 어린 두 딸을 혼자 키



우며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 을현 씨를 만나고부터 잡초를 뽑던 고단함을, 기억 자로 허리가 굽어버린 이모를 만나고 돌아온 밤의 슬픈 마음을 시로 쓰며 활기를 되찾았다. 경만 씨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는 시를 문예지에 출품

해 신인상까지 받은 '시 쓰는 주방장'이다.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은 시인 을현 씨와 외로운 인생을 돌고 돌아온 주방장 경만 씨의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유재석과 이효리의 '핑퐁 토크'

tvN 새 예능 '일로 만난 사이' 1회 평균 시청률 4.9%

일 새 없이 조절조절하는 유재석과 그런 유재석을 잡는 이효리 콤비가 오랜만에 만났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 방송한 tvN 새 예능 '일로 만난 사이' 1회 평균 시청률은 4.9%(이하 비지상파는 유료 가구), 순간 최고는 5.9%로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

다. tvN 타깃인 20~49세 시청률은 평균 4.1%, 순간 최고 4.8%로 집계돼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였다.

'일로 만난 사이'는 유재석이 매회 스타 게스트와 함께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 맘 흘려 일하는 내용으로, 첫 방송에서는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제주

녹차 밭을 찾았다.

특히 전날 방송에서는 SBS TV '패밀리가 떴다'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춘 유재석-이효리가 큰 관심을 받았다. 초반 고된 노동에만 집중하나 싶었지만, 어느 정도 적응되자 '핑퐁 토크'를 벌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웃음을 안겼다.

다음 주 게스트로는 배우 차승원이 등장할 것이 예고됐다.

동시간대 예능 KBS 2TV '아이들 위한 나라는 있다'는 2.2%~2.7%,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은 4.7%~6.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수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미니다Q(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라크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컬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총복 청주 공연)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25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KBS 뉴스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스포츠특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그림을 그려요(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코(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티톡! 보니하니
07:00 로보카 폴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9:00 스파이더맨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히어로즈 트립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7:45 페파 피코	14:45 물랑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덩동덩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낯선 매력 코카서스 꺼지지 않는 불꽃 아제르바이잔>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크프라임
09:00 출동! 슈퍼왕스(재)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15 마샤와 곰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히어로즈 트립(재)
09:30 원더볼츠	16:25 마샤와 곰(재)	
10:00 고양이들 부탁해	16:40 덩동덩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48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60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72년생 개별적으로 경중을 따져보아야 할 형편이다. 84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97, 92	午	42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54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66년생 파격적인 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78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90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적 의미 미가 내포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3, 61
丑	37년생 현상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49년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61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73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85년생 보류하고 온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7, 72	未	43년생 행운이 다가오는 장면이다. 55년생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67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79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91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8, 25
寅	38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0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62년생 자신부터 솔선수범 하라. 74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다. 86년생 의욕이 앞서더라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1, 15	申	44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56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68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80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92년생 균형을 잃는다면 반드시 부작용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83, 43
卯	39년생 뜻은 있으나 동력이 약한 이치이니 힘을 보충해야 한다. 51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불겠다. 63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75년생 석연치 않다면 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 87년생 방향을 잘 잡는다면 슬슬 풀리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94	酉	45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57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까스로 해결 된다. 69년생 양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81년생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하자. 93년생 순서와 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정상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81, 64
辰	40년생 합리적이야만 알찬 결실을 맺는다. 52년생 웃음이 얼굴에 가득할 것이다. 64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일으키리라. 76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88년생 귀인이 도우니 꺾히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7	戌	34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46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58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70년생 귀인이 명관이니 새 것보다 옛 것이 더 낫다. 82년생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9, 93
巳	41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다. 53년생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인다. 65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하리라. 77년생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할 것이다. 89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4, 45	亥	35년생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47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59년생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71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83년생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0, 29